

27_5_한국어_今井兼平の墓

이마이 가네히라 묘

겐페이 전쟁[1180-1185] 때 활약한 기소
요시나카의 유모 아들이,
이마이 가네히라입니다. 1184 년, 이 부근에서
일어난 아와즈 전투에서 요시나카가
사망하자, 가네히라도 그 뒤를 따라 자살했습니다.
가네히라의 묘는, 원래는 산 쪽에 있었던 허술한
무덤이었습니다. 17 세기가 되어,
제제 번주들이 새로이 묘석을 세우고, 도카이도에
가까운 현재의 장소로 옮겼습니다.
부지에는 가네히라의 자손들이 세운 등롱과
기념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.